



[산업] LG화학 소재사업 강화 美서 재료기술 인수 06



Economy

코스피	2177.18 (+8.90)	코스닥	739.57 (+2.76)
금리 (미국 3년)	1.72 (-0.01)	환율 (원/달러)	1136.40 (+2.70) (2일)

저출산의 그늘...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범대 감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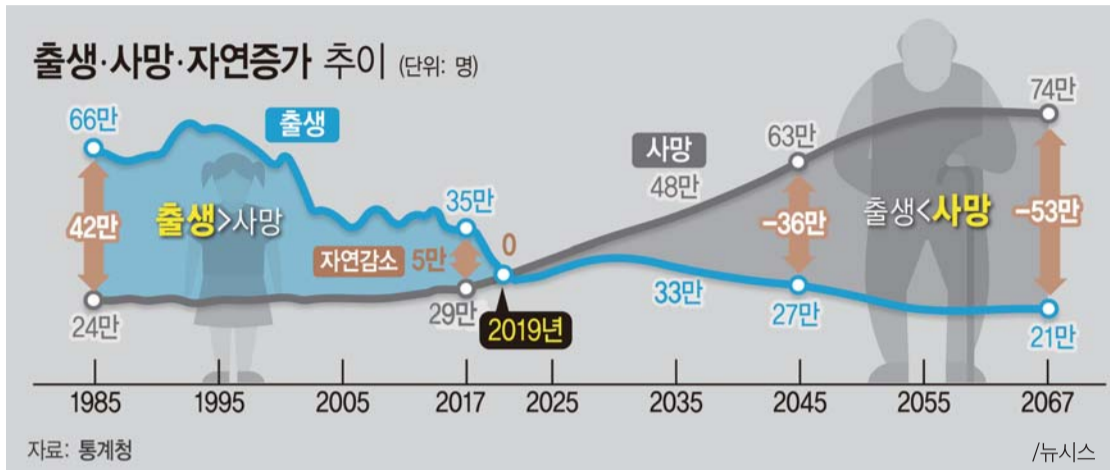
(2022학년도)

교육부, 158개교 평가 진행

학생 급감에 교원규모 적정화 5개 등급 나눠 정원감축 추진 E등급 평가기관은 아예 폐지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 강화

저출산의 그늘이 교원을 양성하는 사범대와 교육대에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역량진단을 시행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고1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 대입 정원의 추가적인 감축도 예고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교원 감축 영향에 따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9~2020년 교원 양성기관 역량진단 시행계획'을 수립해 2일 발표했다.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은 교육부가



지난 1998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진행되는 평가로 지난해 교대와 교원대 평가에 이어 올해와 내년 4년제 일반대학 평가, 2021년 전문대학 평가 등 5주기(2018~2021) 평가가 진행된다.

이날 발표된 5주기 2·3차년도 평가 대상은 사범대 설치대학 45교와 사범대 미설치대학 113교 등 158개교로 사범대와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 대학의 교원 양성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5개 등급(A·B·C·D·E등급)으로 분류된다. 상위 등급인 A·B등급을 받으면 입학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으나, C등급을 받으면 정원의 30%, D등급은 50%를 감축해야 한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아예 폐지된다. 이번 평가 최종 결과는 2020년 12월 확정돼 발표되고 후속 정원

감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인 ▲초중등학교 수업환경 등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과정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교육과정 ▲교직 인적성 함양 등을 위한 체계적·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부를 중점 진단하는 등 교육 과정 영역에 대한 평가를 전체 평가 지표의 50% 내외로

상향했다.

교육부는 5주기 평가를 기존 '수직적 평가'에서 '수평적 역량 진단'으로 개념을 전환해 정량 지표 산출 방식을 사전 공개했다. 대학 스스로 준비 과정을 거쳐 교원 양성기관으로서의 교육의 질 제고에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 평가 지표에 '장애 학생 선발 및 지원 노력',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실적', '(스마트)교육시설 확보 및 활용', '과거 평가 결과 환류(피드백) 노력', '학부 이수 과목 인정 절차의 체계성(교육대학원 대상)' 점수가 신설됐다.

교육부는 앞서 3주기(2010~2014년) 평가를 통해 교원 양성 정원 3929명을 감축했고, 4주기(2015~2017년) 평가에서는 6499명을 감축하는 등 교원 양성 정원을 지속 감축하고 있다.

◆교수사회 고용 유연성 커져 교원 양성 대학 정원 감축은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원 수급을 고려해 교원 양성 규모를 적정화 하기 위한 취지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수는 2007년 775만명에서 2018년 559만명으로 줄었고, 2022년에는 505만명, 2030년에는 4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는 기존 대학 조직의 활용과 교수 사회 고용 유연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는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기존 (대학)조직은 큰 변화없이 진입 숫자가 줄다보니 수급 불일치가 나타나고, 정부도 선제적으로 정원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면서 "취학 기간을 줄이거나 평생교육 등 학교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F-4E 탑승한 이왕근 "이상 무!!" 이왕근 공군참모총장이 2일 제10전투비행단에서 F-4E 전투기에 탑승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유·채소가격 등 하락에 소비자물가 석달째 0%대

3월 소비자물가 0.4% ↑ 2년8개월 만에 최저치

석유·채소 가격 하락과 서비스요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의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49(2015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2016년 7월(0.4%)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상승률이 이보다 더 낮았던 때는 1999년 7월(0.3%)이었다. <관련기사 2면> 전년 동월과 비교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작년 12월에는 1.3%였는데 올해 1월 0.8%, 2월 0.5%에 이어 3개월 연속 1% 미만에 머물렀다.

올해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5%로 분기별 통계가 제공되는 196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품목 성질별로 보면 석유류가 지난해 3월보다 9.6%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를 0.43%p 낮췄다.

채소류 물가는 12.9% 하락해 전체 물가를 0.21%p 끌어내리



는 효과를 냈다.

농·축·수산물은 0.3%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02%p 낮췄고, 서비스물가는 1.1% 상승해 전체 물가를 0.58%p 끌어올렸다.

개별 품목을 보면 무(-51.1%), 딸기(-16.1%), 양파(-30.3%), 파(-30.6%), 호박(-30.0%) 등의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다.

석유 제품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렸다. 작년 같은 달 대비 납품을 보면 휘발유 12.6%, 경유 7.0%,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6.9% 등이다.

다만 전월 대비로 보면 국제유가 상승 흐름을 타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1.4%, 1.6% 상승했다. 가격수준으로 봐도 두바이유 가격은 2월 배럴당 64.6달러에서 3월 66.9달러로, 휘발유는 1당 1344원에서 1369원으로 올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KT, 8만원대 5G 무제한요금제 '초강수'

LTE 무제한보다 9000원 저렴

KT가 8만원대에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선보이며 '5G 전쟁'에 대비할 강력한 무기를 내놓았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저렴한 요금제로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총 8종의 5G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며 5G 개막전에 불을 질렀다.

KT는 2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이 같은 요금제를 포함한 4종의 5G 요금제와 콘텐츠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5면>

오는 5일 출시하는 'KT 5G 슈퍼플랜'은 베이직·스페셜·프리

	프리미엄	스페셜	베이직
월정액	130,000원 (선택약정 할인시 97,500원)	100,000원 (선택약정 할인시 75,000원)	80,000원 (선택약정 할인시 60,000원)
데이터	완전 무제한	완전 무제한	완전 무제한
로밍 데이터	무제한 (최대 3Mbps 속도제한)	무제한 (최대 100Kbps 속도제한)	무제한 (최대 100Kbps 속도제한)
멤버십 등급	VVIP	VVIP	VIP
단말보험 (분실파손)	멤버십 차감 월 최대 4,500P	멤버십 차감 월 최대 4,500P	
스마트기기	1대 요금 무료	1대 요금 무료	

미엄 3종이다. 세 요금제 모두 속도제한 없이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전 세계 185개국에서도 로밍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슈퍼플랜 베이직'은 월정액 8만원(이하 부가세 포함)에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다. 8만9000원의 롱텀에볼루션(LTE)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데이터ON 프리미엄'보다 9000원 더 저렴하다.

'슈퍼플랜 스페셜'과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는 각각 월정액 10만원, 13만원이다. 특히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는 해외에서도 최대 3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데이터를 많이 쓰지 않는 5G 이용자를 위해서는 '5G 슬림' 요금제를 선보였다. 5G 슬림은 월정액 5만5000원에 매월 8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기본 제공량을 소진하면 최대 1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